

협회소식

<협회소식>



▷ 4월 3일:마사회, 축산 현안 설명회 참석

▷ 4월 4일 가축개량협의회(전체위원회)개최_성환축산자원개발부

▷ 4월 6일:한우능력평가개최추진협의회_본회의회의실

▷ 4월 7일:여주검정회총회 참석

▷ 4월11일:경기한우 개량동우회 참석

▷ 4월 13일:유우군산유능력검정보고회_한경대학교

▷ 4월 17일:축산물등급판정소 창립17주년 기념비전 선포식

▷ 4월20일:경기북부한우조합 창립 총회

▷ 4월27일:종돈보고회_(유성)아드리아호텔

우수농장의날 행사 개최



한국낙농경영인회는 지난 3월 29일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열린 제 28회 우수농장의 날 행사에서 신임 임원선출을 하였다. 만료된 회장에 황병익대표(농도원목장), 부회장에 김원동대표(장현목장), 사무총장에 조규용대표(조란목장)를

각각 추대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환경과 낙농」을 주제로 축산연구소 양창범 과장이, 「최신 경제적 분뇨처리」를 주제로 주)실티 신일현대표가, 「낙농체협을 통한 우유소비홍보」를 주제로 낙농진흥회 김세용 과장의 교육이 있었다. 또한 우수농장으로 선정된 지연목장·남양유업공장·대림목장을 차례로 방문하여 정보를 교환하는등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2005유우군능력검정사업보고회



본회는 지난 4월 13일 안성 한경대학교 낙농기술센터 강당에서 2005 유우군능력검정사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조병대 본회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본회에서는 검정농가를 중심으로 한국홀스타인품평회 및 세미나개최, 개량 방향등 모든서비스 개선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유우군 검정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개체들에 대하여 선정심사를 실시하여 능력과 체형 그리고 혈통까지 포함하여 계획교배 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하여 효율적인 개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사발령

본 협회의 직원 인사발령이 2006년 4월 17일부로 아래와 같이 실시되었다.

소 속	성 명	내 용
사무국장 직무대리 기획행정부장 겸직	이 종 헌	사무국장 서리
전라북도지부	김 윤 식	한우개량부장
한우개량부	정 용 호	유우개량부장 직무대리
경상북도지부	신 재 영	기획행정부장
유우개량부	윤 현 상	홍보개발부장
홍보개량부	정 승 곤	전라북도지부장

제 1회 포천검정연합회총회 및 제 3회 홀스타인품평회 발대식

지난 4월 20일 포천농업기술센터에서 제 1회 포천검정연합회 총회 및 제 3회 홀스타인품평회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포천시장, 시의회의장과 시의원, 윤봉준 축산신문사장, 포천축협 조합장 및 검정농가가 참석한 가운데 우수회원 시상과 일년간 검정회 사업성과를 발표하는 시간만 마련하였다.

정읍검정회 월례회의 개최



본회의 검정농가 모임인 정읍검정회(회장 방의남)는 지난 4월 7일 회원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정읍축산연합회 사무실에서 제2차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신규회원들을 위한 젓소검정성적표 보는 요령을 교육했다. 또한 그간의 검정회의 활성화에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한 전임 회장 김낙영씨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신규 임원(부회장 박래옥, 총무 김정택, 재무 김병희)들은 정읍시 젓소 개량사업의 지원회비, 검정농가의 확대방안, 정읍품평회 및 우수목장의 견학에 대한 폭넓은 대화를 나누었다. 또한 회원들은 개량사업 및 품평회의 중요성을 감안, 시 예산의 확보 및 품평회 참가농가의 확대 등 다각도로 노력하기로 의견을 공감하고 우수목장 견학은 충남보령의 놀목장으로 5월3일 다녀오기로 잠정 합의를 했다.

북경 낙농 경영자단체 내방

지난 4월 18일 북경/천진 정부 관료(부시장/축목국장 포함)을 비롯한 대군낙농목장/유업회사(착유규모 2,500~8,000두) 및 중국 푸리나사료 낙농팀 대표가 본회를 방문하고, 한국중축개량협회의 유우능력향상을 위한 활동사항과 산



유능력검정사업의 개요, 능력향상 사항 전반을 비롯한 홀스타인운영 사항, 홀스타인 능력개량의 방향등, 교육을 통한 효율적이고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과 기술서기관 최염순박사가 덴마크의 양돈산업에 대해서는 DanBred International 국제담당 헨릭 보홀름, 통역 유병현박사가 각각 강연하였다. 또한 이날 행사에 앞서 대의원선출이 있었다. 다산종돈 박화춘대표, 동부씨멘뱅크 신창엽대표, 성성산종돈 오재곤대표, 이천A센터 이종영대표, 농업회사법인디비육종(주) 민동수대표, 문경화인영농조합법인 이경록대표가 이사새로운 대의원으로 선출되었다

2006 국제종돈개량세미나 및 '2005종돈능력검정보고회 개최

본회는 지난 4월 27일 덴마크 DanBred International의 후원을 받아 2006국제종돈개량세미나 및 2005 종돈능력검정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올해로 11번째를 맞는 이번 세미나에는 덴마크 종돈의 육종과 육질에 대해

연사 DanBred International 대표 토마스 물란 헨릭센 씨, 통역에 김성훈박사가 종돈산업 발란말 시키지마

전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농림부 축산정책

업계소식

낙농 신제품 <오웰빙(우성사료5WellBeing)>출시



(주)우성사료(대표이사 지평은)가 지난3월 24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영업사원을 비롯한 마케팅조직이 모인 가운데 2006년 낙농 신제품 출시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오웰빙은 우성사료 고유의 축우사료 설계원리인 토탈뉴트리션 개념에 세계적인 낙농전문회사인 프로비미사(본사 화란)의 간 건강에 대한 검증된 노하우를 접목시켜 탄생되었다. 우성사료는 PROVIMI사의 낙농 스페셜리스트 Iweve Hofstede(호프스테드)씨를 초청하여 3월 24일 본사 영업조직에 대한 교육을 시작으로 27일 상주 관광호텔, 28일 이천 미란다호텔, 29일 고창 선운산 관광호텔에서 전국의 낙농사양가 500여명을 대상으로 <간기능 개선과 생산성 향상방안>이란 주제로 오웰빙 신제품 출시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특장점 및 기대효과

젖소의 5대 기관의 웰빙의 사명을 띠고 탄생된 오웰빙의 특장점과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1) 생기찬 간(Healthy Liver)
간기능 개선제 특수처방, PROVIMI사 기술점목



- 2) 건강한 발굽(Healthy Hoof)
발굽건강 증진제 신기용, 바이오틴/나이아신 강처방
- 3) 편안한 반추위(Healthy Rumen)
발효환경 안정제, 고급 복합생균제, 효소분비 촉진제 다중 균형처방
- 4) 깨끗한 유방(Healthy Udder)
생리활성/면역증강 물질 강처방, 유기태 미량 광물질 적정처방
- 5) 늘 젊은 자궁(Healthy Uterus)
Vit. AD3E, 5대 미량광물질 Se, Co, Cu, Mn, Zn 특수처방
내용문의: 손근남 이사 (축우PM) 018-419-1193

주)우성사료, 천안연암대 축산 장학금 전달

우성사료(대표이사 지평은)는 최근 천안연암대에 축산장학금을 전달했다.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축산발전에 기여가 기대되는 축산계열 김문기 학생을 비롯한 10명에게 총 500만원을 수여한 우성사료는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 후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민 우성사료 상무이사는 “축산의 밑거름이 될 젊은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게돼 기쁘게 생

각한다"며 "앞으로도 산·학계간 협력체제를 이뤄 공동과제를 수행하는 등 축산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구제역특별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06년
제1차 경영혁신 회의 개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최상호)는 지난 4월 10일 6층 회의실에서 각도본부 사무국장, 지도과장 및 출장소 팀장 등 60여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구제역특별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경영혁신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구제역에 대한 질병정보 및 발생동향을 중심으로 한 이번 회의에서 최상호 본부장은 "최근 우리나라와 인접한 중국, 러시아, 북한에서 구제역이 점차 확산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농장 예찰 및 국경방역이 요구되고 있다."며, 특히 방역요원들은 방역취약 농가에 대한 구제역 특별 예찰과 방역홍보물을 이용해 농가와 1대1 교육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유사증세 발견시 조기 신고 될 수 있도록 예찰활동에 주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방역본부의 올해 핵심적으로 추진할 혁신과제로는 △다면평가제 등을 통한 인사관리의 합리화 △윤리경영 시스템 강화 △돼지오제스키

병 근절대책 추진 △고객만족을 위한 맞춤형교육 확대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이에 대한 실천방안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번 구제역특별대책 추진상황 점검은 방역요원들의 농장에 참여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경영혁신 회의를 통해 임직원이 서로를 이해하고 올해 혁신추진계획 및 방향등을 공유함으로써 혁신 및 업무추진을 더욱 강화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퓨리나, 천안연암대 장학금 전달식



(주)애그리브랜드 퓨리나코리아 장학금 전달식이 3월 30일 (목) 천안연암대학 3층 회의실에서 서경덕 학장과 (주)애그리브랜드퓨리나코리아 유병우 전무와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금 전달식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주)애그리브랜드 퓨리나코리아 장학금은 축산계열 2학년 9명과 1학년 11명, 총20명에게 각 50만원씩 총 1,000만원의 2006년 1학기분 장학금이 지급되었다.(주)애그리브랜드 퓨리나코리아에서는 1993년부터 매년 축산계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204명에게 104,600,000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였다고 말했다.

낙농자조금사업 준비 '박차'

낙농자조금관리위, 1차소위원회 열고 사무국 설치등 폭넓게 논의

낙농자조활동자금사업의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낙농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관리위원장 이승호)는 지난 14일 서초동 소재 축산회관에서 관리위 첫 소위원회를 갖고 사무국 설치 및 농가 및 수납기관 홍보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소위원회는 이승호 위원장, 이용우·손광익 부위원장, 박치봉·이재용·김태섭 위원 등 6명으로 구성됐다.

소위는 이날 관리 사무국 설치에 대해 논의, 1국 2팀 4명으로 직제 및 조직정원을 정하고 4월중 공개 채용키로 했다. 직원의 임용은 인사위원회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되 급여는 타자조금관리사무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사무국 직원의 인사 및 급여와 관련 제규정을 제정했으며 제규정에 따라 사무국장은 별정직으로 구분 50세 이하로 채용하며 경력에 따라 예외규정이 적용된다.

소위는 또한 사무국설치를 위한 자원 마련은 임의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추가 논의예정이다.

한우자조금 거출 90% '눈앞'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남호경)에 따르면 지난 3월 한우자조금 거출이 전체 도축두수 3만1천50두 가운데 2만7천51두로 거출율 87.1%를 보였다. 특히 그 동안 상대적으로 거출이 부진했던 지역에서의 자조금 참여도가 눈에 띄게 높아져 조만간 전체 거출율 90%의 벽도 넘

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거출율 70~80% 수준에 머물렀던 지역들도 90%를 넘어서면서 완전히 자조금의 분위기를 정착시켜가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거출율 90%를 넘는 지역은 경남(99.3%), 경북(98.9%), 충북(97.8%), 경기(92.7%) 등 4개도다. 그 뒤를 강원(77.2%), 충남(75.2%)이 받치고, 50%를 밑돌던 전남(59.6%) 전북(57.6%)도 눈에 띄게 거출율이 올랐다.

특히 전남지역의 거출 촉진활동이 주목된다. 한우협회 전남도지회(지회장 김남배)는 지역도축장으로부터 자조금 미납자 3천여명의 명단을 입수해 이들에게 개별적으로 협조문서를 발송했다. 이로 인해 전남도지회는 물론 서울에 있는 자조금 사무국으로도 매일 문의전화가 걸려오는 등 자조금 거출 촉진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전남도지회는 5월말까지 자조금 거출 100%를 목표로 지역 도축장을 순회하며 자조금 참여도 끌어올리기에 주력할 계획이다. 자조금 사무국도 이 같은 전남지역의 방법을 도입해 미납장명단이 확보되는 대로 협조 서신을 일일평균 50여통 이상 발송하고 있다.

한편, 올해 1/4분기 전체 도축된 한우는 10만 9천175두이고 이 가운데 8만8천780두가 자조금을 납부해 전체 거출율은 81.3%다.

농지에 축사 진입 수월해질 듯

그동안 농지전용을 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농지관리위원회 심의 확인 절차가 앞으로는 폐지된다.

농림부는 축산업계의 숙원사항중 하나인 농

업진흥지역에 축사 진입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심의 절차를 폐지기로 하고,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조일현 의원이 입법 발의한 농지법개정안을 수정 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농지로서의 축사 진입이 한층 수월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축산업계는 그러나 축산도 농업인 만큼 농지에 축사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국회에 제출된 농지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우선 단계적으로 축사 진입을 완화하면서 농지 개념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농지법과 관련한 용역을 의뢰하고, 이 내용을 근간으로 농지법개정을 계속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농림부 방침에 대해 축산업계는 휴경 직물제까지 주면서 늘리는 논에 축사를 자유롭게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축산을 확대하는게 아니냐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DDA/FTA 등 개방확대에 축산업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 뻔한데도 축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에 소홀하고 있다며 농림부가 펼치고 있는 쌀 위주의 편향된 정책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와 관련 축산단체장들과 축협조합장 등 축산지도자들은 지난 25일 박현출 농림부 축산국장과 면담을 통해 현 제도하에서 농지심의 폐지는 축사의 농지 진입에 있어 큰 장애물을 제거한 것이기는 하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며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농지법개정안대로 처리돼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경기북부한우협동조합 출범



김인필 초대조합장

경기 북부 한우 조합은 지난 20일 경기도 제2청사 대강당에서 우영목 한우협회경기도지회장, 조병대 한국축육개량협회장 및 조합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갖고, 그동안 한우협

동조합 창립을 선두에서 지휘해온 김인필 창립추진위원장을 초대 조합장으로 만장일치 추대했다. 특히, 조합의 전 임원이 무보수로 일하기로 해 눈길을 끌었다.

김인필 초대조합장은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비용은 최소화시켜 조합원의 수익창출에 집중할 것”이라며 “임원 모두 무보수로 일하는 것도 이 같은 조합의 취지를 살리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한, “오늘 출범한 경기북부한우협동조합은 고급육 생산을 통한 한우광역브랜드 사업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합구역은 경기도의 한강 이북지역으로 고양시, 연천군, 포천시, 양주시, 동두천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 양평군 일원으로 이 지역에서 한우10두 이상 사육하는 농업 경영인이면 번식, 비육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다.

조합원 최소 출자금은 개인 30만원, 법인은 500만원이며, 1인 출자금은 5천만원을 넘지 못한다.

※ 경기북부한우협동조합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2동 765-1 금오종합상가 A동 707호

전화 : 031-851-0040

소값 우려 속 생우수입 한우사육농가 속 탄다

한우 사육마리수 증가로 인한 소값 하락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생우 수입이 끊이지 않고 있어 한우 사육농가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0일경 부산항과 인천항을 통해 국내에 들어온 호주산 수입생우 8백40두가 최근 고흥지역을 마지막으로 농가입식을 완료했다.

이번에 생우가 입식된 지역은 전남 고흥에 두 차례에 걸쳐 3백80여두, 경주에 1백80여두, 김해에 1백여두, 익산지역에 1백20여두가 입식된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현재 검역원에 보고된 바로는 1~2개월 내에 추가 수입되는 물량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우협회(회장 남호경)는 연내에 1차례 이상 수입이 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한우협회 측은 수입생우는 수익성 분석 결과 한우로 둔갑판매하지 않는 이상 수익을 내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된 만큼 생우 입식농가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외래질병에 무방비로 노출된 수입생우를 묵인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이들 생우가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되면 국내산으로 인정받는 것을 악용해 한우로 둔갑될 가능성이 높아 유통과정을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6 춘계 축산인 등반대회 개최

지난 21일 관악산서 축산신문사 주최로 개최된 축산인 등반대회가 화창한 날씨 속에 성황리에 끝났다.

이날 농림부 박현출 축산국장은 인사를 통해 축산인이 하나되어 축산현안을 해결하는데 큰 힘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축산인 등반대회는 축산인들의 단합과 화합을 도모함은 물론 축산현안에 대한 폭 넓은 공감대를 형성, 축산발전에 활력을 불어넣는 행사로서, 이제 축산인들이 함께 자리할 수 있는 뜻 깊은 행사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농지법 개정’ 다음 회기에서 재심의키로

농지법개정안이 농지를 보존하면서도 경종과 축산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임에도 또 다시 다음 회기로 넘겨졌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한광원)는 지난 19일 회의를 열어 조일현 의원이 입법 발의한 농지법개정안 등을 놓고 심의를 벌였으나 이 법안의 주요골자인 농업진흥지역에서 축산신축을 자유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 농림부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자 다음 회기에서 재심의키로 했다.

이날 심의에 참석한 이명수 농림부 차관은 “친환경축산업의 신뢰를 쌓아가면서 경종농가로부터 이해를 구하고 지자체장이 친환경축산이라는 인증을 해 주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완곡하게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더욱이 농림부측에서는 “오는 10월에 농지에서의 축산신축과 관련한 응역 결과가 나올 계획”이라며 이 결과를 토대로 그 때까지 심의자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대해 안병엽의원(열리우리, 경기 화성)은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축산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기갑의원(민노, 비례대표)은 원칙적으로는 농지에 축사 신축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축사 신축의 남발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법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용역 결과만 기다리지 말고 이에 대한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처럼 정부와 의원간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이날 심의에 참석한 소위원들은 정부에서 농축산업계의 충분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며 다음 회기에서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축산업계에서는 “농림부는 축산업을 농업으로 인식하지 않고 오히려 환경오염원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 농지법개정안이 다음 회기로 넘겨진데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농림부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호주산 생우, 전남 고흥 한우농가 1백여명 입식저지 투쟁

고흥지역 한우농가들이 호주산 생우 입식 저지 투쟁에 나섰다.

한우협회 고흥군지부 회원 1백여명은 지난 19일 고흥군 동강면 한천리 국도와 도회면 성곡리 마을입구에서 호주산 생우 2백50마리를 실은 트럭의 진입을 막기 위해 길목을 차단하고 입식 저지 투쟁을 벌였다.

수입 생우를 실은 트럭 19대가 19일 오전 고흥지역으로 진입한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한우농가들은 트랙터와 각종 농기계를 동원해 길목을 막고 이날 오전 5시30분부터 수입 생우를 실은 트럭과 하루 종일 대치 상태에 들어갔다.

저녁 무렵이 되자 경찰은 공권력을 동원, 한우농가들을 분산시켰으며 우회도로를 통해 트럭의 이동이 시작되자 일부 농가들이 트럭 앞을 가로 막고 진입을 저지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호주산 생우를 실은 트럭이 오후 7시 30분경 고흥군 도회면 성곡리 마을 입구까지 진입하자 한우농가들은 트랙터로 가로막고 소반입을 저지했다.

경찰은 이 자리에서 한우농가들을 설득하는 한편 반입을 시도했지만 농가들의 반발이 거세고 날이 어두워지자 이날 오후 9시경 철수했다.

장수환 한우협회 고흥군지부장은 “청정한 고흥지역에 수입생우는 절대 입식될 수 없으며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회원농가들과 함께 힘을 모아 기필코 입식을 막아 내겠다”고 말했다.

창녕축협_운영공개·전이용대회 개최

창녕축협(조합장 김인옥)은 지난 19일 창녕공설운동장에서 김상재 군수대행 및 관계인사, 조합원 등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운영 공개 및 전이용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창녕축협 조합원들은 적극적인 조합사업 참여와 함께 조합원 및 임직원 모두가 화합하고 상생하면서 선도조합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김인옥 조합장은 “조합원의 실익증대와 지역 축산물유통의 핵심 주체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조합원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조합사업 이용, 출자 증대를 당부하고 어려워져만 가는 축산현실을 하나 된 마음으로 이겨 나가자고 강조

했다.

한편 조합 사업보고에 이어 농협사료 원유석 전무의 가축사양기술 강습회와 함께 명지대학교 정덕희 교수 초청특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최영열 양돈협회장, 강기갑 민노당의원, 남호경 한우협회장,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사진왼쪽부터)이 공동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촉구_여·야의원 공동 결의안 채택



지난 18일 오전 9시30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을 비롯해 남호경 전국한우협회장,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최영열 대한양돈협회장은 공동으로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표하고 이를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했다.

특히 이날 결의안은 여야 의원 39명이 공동 발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문제에 대해 여야가 당을 초월해 뜻을 모으다는 점에서 의미있게 평가된다.

이날 강기갑의원은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일본과

홍콩 등은 수입중단조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발병우의 나이 확인 후 바로 수입재개에 들어갈 것이라 말하고 있다"며 "이에 여야 의원의 뜻을 모아 수입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남호경 회장은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농가와 정부의 노력으로 BSE 청정지역을 유지해왔으며, 지금까지의 노력이 미국의 압력으로 힘없이 무너지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결의안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기 전까지 수입을 중단해야 하며, 국민 건강과 안전에 부합하는 새로운 수입위생 기준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결의안에 공동발의한 의원은 다음과 같다.

- ▲열린우리당: 김원웅, 김재윤, 변재일, 신학용, 장영달, 최규성, 문학진, 장복심, 임종인(이상 9명)
- ▲한나라당: 권오을, 김학원, 박세환, 배일도, 이강두, 정문헌, 정병국, 홍문표, 김영덕, 이인기, 김애실, 허천(이상 12명)
- ▲민주당: 손봉숙, 이정일, 최인기, 한화갑(이상 4명)
- ▲민주노동당: 강기갑, 권영길, 노회찬, 단병호, 심상정, 이영순,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이상 9명)
- ▲국민중심당: 김낙성, 류근찬, 이인제, 정진석, 신국환(이상 5명)

전국축산발전협의회 농지법 개정 등 4대 현안 해결 역량집중

농지법 개정 등 축산업 4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축협조합장들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전국축산발전협의회(회장 윤상익·여주축협장)는 이를 위해 5월 10일 오전 10시30분

농협안성교육원에서 전국 축협 조합장 전체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축산발전협의회는 지난 18일 농협중앙회에서 2006년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5월10일 전국 축협조합장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한·미 FTA, 농지법 개정, 정부의 식품안전처 신설 등 주요 축산현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축산발전협의회에서 윤상익 회장은 △한·미 FTA 대책 △식품안전행정체계 개편 대책 △농지법 개정 대책 △축산환경 대책 등 축산업 4대 현안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 축협 조합장과 축산관련단체장, 학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비상대책기구를 운영키로 주요 축종단체장들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 각도 협의회장들과 중앙회 이사 축협장, 품목축협조합장협의회장 등은 축산 4대 현안에 대한 축협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조합장들은 각 지역별로 축협이 주도해 각 축종단체, 지자체 관련 공무원, 학계 인사 등이 포함된 축산현안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중앙단위의 농정활동과 연계된 지역별 농정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위해 학계 등이 참석하는 4개 소위원회를 전격 구성하는 등 발빠른 행보에 나섰다.

이날 소위원회는 ▲농지법개정(위원장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한·미 FTA 대응(위원장 남호경 전국한우협회장) ▲식품행정 체계 개편 대응(위원장 정영채 대한수의사회장) ▲축산환경대책(위원장 최영열 대한양돈협회장)분야로 각각 구성했다.

특히 비대위는 축협조합장들로 구성된 축산발전위원회 회장단 및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단과 연석회의를 열고 앞으로 협동조합, 학계, 생산자단체,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축산현안 4대 현안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이의 일환으로 농지법개정 소위원회 이승호 위원장(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지난 12일 조찬 모임에 이어 13일 남호경 한우협회장, 최준규 양계협회장, 이윤우 낙농육우협회 고문인 이명수 농림부 차관을 방문, 농지법개정을 거듭 촉구했다. 이에 이 차관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고민중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범축산비상대책위원회 분야별 소위원회 구성

축산식품행정체계 개편을 비롯 축산 현안 해결을 위한 범축산비상대책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비대위'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축협조합장협의회 회장단과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최근 긴급 모임을 갖고, 축산현안 해결을

해외소식

일본, 쇠고기 육질 '마블링' 원인유전자 발견

쇠고기를 단면으로 잘랐을 때 지방이 눈 내린 것처럼 육질에 박혀있는 '마블링'을 만드는 유전자가 일본 연구진에 의해 발견됐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3일 보도했다.

교토대 연구진은 일본산 최고급 쇠고기인 흑모화종(黒毛和種)과 젓소 품종인 홀스타인을 상대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혈관의 성장 등에 관여하는 'EDGI'라는 유전자가 마블링의 형성과 관련된 사실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결과로 마블링이 좋은 육질을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서 광우병 의심사례 발견

일본 도쿄(東京) 북동부 240km 후쿠시마(福島)현에서 최근 20개월 된 젓소에서 광우병(BSE) 감염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고 농무성 관계자들이 17일 밝혔다.

관리들은 후쿠시마현에서 지난해 식용으로 도축된 젓소를 조사한 결과 광우병 양성 반응을 보였으며, 이것이 최종 확인될 경우 미국과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농무성은 이에 따라 추가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관리들은 덧붙였다.

일본에서는 올해 3건을 포함해 2001년 이후 모두 24건의 광우병 감염 사례가 확인됐으며 미국에서는 그동안 3건이 발견됐다.

일본, 낙농가 4월부터 우유생산관리 기장 본격화

일본 낙농가들이 5월말에 시행되는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우유 생산관리 이력 장부 기장을 4월부터 본격화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농협 단체인 중앙낙농회의가 3월에 배포한 체크시트를 이용하여 낙농가는 사료나 위생 관리 등을 매일 기입하고 있는데 기장의 철저를 위해 원유의 출하계약서에 기장의 의무를 명기하는 것은 물론 지도 담당자가 낙농가 전체를 방문해 점검하는 등 업계가 앞장서서 원유의 안전·안심 확보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체크시트는 중앙낙농회의가 정부의 보조사업으로 제작하여, 3월말에 독자적으로 기장을 실시한 홋카이도를 제외한 전국 도부현의 낙농가들에게 무료로 나눠주었는데, 기장하기 쉽게 일지 형식으로 1년분을 1권에 정리하게 되어있다. 낙농가는 젓소에게 준 사료는 물론 설비의 소독·세정, 사료 및 사료용작물에 사용한 농약·비료 등에 대해서도 사용시기나 수량 등을 기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유청제품이 근육 피로 회복에 효과

치즈의 부산물인 유청(웨이) 제품을 섭취하는 것이 운동 후의 근육 피로에 회복 효과가 있다고 호주 멜버른에서 지난 3월 12일 개최된 영연방 스포츠회의에서 발표되었다. 이 연구를 주도한 디킨 대학에 의하면 격렬한 트레이닝 후 남성에게 일정량의 유청을 섭취시켰는데 근육 피로에 큰 회복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종래 유청 제품은 보디빌더 등 특정 수요자가 주로 관심을 가져 스포츠 과학자나 영양사는 그 효과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연구에서 유청 제품은 신체에 빨리 소화흡수 될 수

있어 고품질 아미노산의 이상적인 공급을 재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상적인 유청제품으로서는 리콧타치즈의 섭취를 권장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캐나다, 광우병 의심 소 또 발견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럼비아주 밴쿠버 인근 프레이저 밸리 한 농장의 6년생 젖소 한마리가 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캐나다식품검사국은 전국적인 광우병 검사계획에 따라 실시한 조사에서 광우병 의심 암소를 발견했으며 광우병 실제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 분석 중이라고 캐나다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식품검사국은 "이 소의 사체를 전량통제하고 있으며 식품이나사료로 사용된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지난 2003년 5월 앨버타주에서 광우병 소가 처음 발견된 후 최고기 수출길이 막혀 70억 캐나다달러(약5조9천억원) 정도의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광우병 재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출확대 노력이 지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앨버타주에서는 지난 1월에도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됐다.

캐나다, 4월부터 우유생산 쿼타 3%추가 삭감 거론

캐나다 온타리오주 유제품 소비량이 줄어들면서 4월부터 우유생산 쿼타를 2~3%추가 삭감하여야 한다는 논의들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특히 '05년도에는 캐나다 유제품 소비량은 매년 증가해오던 치즈소비량이 정체되고 버터소비가

15%, 음용유 소비량은 10%가 각각 감소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원유생산량도 4차례에 걸친 쿼타 감축으로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소비촉진을 위한 업체들의 신제품 개발도 원유 공급가격이나 공급체계가 불합리하여 여의치 않은 가운데 수입 유제품의 점유율이 늘어나 낙농가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美, 뒤늦게 소 개체식별시스템 구축 추진

미국이 뒤늦게 소 개체식별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광우병으로 인해 자국산 쇠고기 수출에 타격을 입자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것.

미국 농무부는 최근 전국적인 가축이력시스템(NAIS)을 구축, 2009년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미국 농무부는 이를 위해 NAIS의 전략적인 계획 및 기준에 대한 초안을 마련했으며, 현재 각 주의 농장등록 시스템을 개발하고 동물 식별 번호표의 제작 및 배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내 축산전문가들은 미국이 소 개체식별 시스템을 실제로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은 소 사육마릿수가 1억마리에 육박하고, 농장마다 많게는 수만마리씩을 방목 사육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송아지 출생부터 이동과 비육과정, 도축, 유통에 이르기까지 개체별로 전산관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지금까지 개체식별 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미국이 주력산

업의 하나인 소 산업에 대해 지금까지 이력추적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것은 바로 이런 이유가 있다며 농무부 계획대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한 축산전문가는 “미국의 소 사육 방식이 개체별로 관리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도입한 소 개체식별시스템을 아직 갖추지 못한 것이라며 이런 이유로 지금까지 도입을 하지 않던 제도를 갑자기 만들겠다고 부산을 떠는 것은 광우병으로 자국의 소 산업이 처한 위기 상황을 모면해보겠다는 공여지책이며 실제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일본, 화우정액 지적재산권 국제 규제 검토

일본 농림수산성은 일본 고유의 화우정액이 해외에서 사용되어 교잡송아지로 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적재산권을 설정하여 국제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조만간 ‘가축 유전자원검토회’를 발족시켜, 식물품종과 같은 육성자 권한을 보호하는 방안, DNA해석에 의한 특허신청과 활용법, 외국 교잡종과의 표시강화책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는 최근 3년간 호주등지에서 수입된 생우가 매년 2만두를 넘어서, 작년에만 2만4천588두가 도입되었고 그중에는 화우정액을 사용한 교잡종이 상당수 포함되고 있는데, 식물 품종과 같이 육성자권을 지키는 제도가 없어 교잡종의 역수입을 규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국내 번식농가의 피해증가와 일본 특유의 화우브랜드 가치 하락을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